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북아시아지역과의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도야마현)

1 목적

일본에서는 극동지역을 비롯한 대륙에서부터 건너오는 겨울새와 방조의 경로 등을 밝히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새의 번식지 및 이동 코스라고 생각되고 있는 극동지역에서는 일본과 대륙을 왕래하는 철새 경로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를 위해 극동지역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철새의 이동경로, 수명, 번식개시연령 등을 밝히기 위해 표식조사를 실시한다.

2 사업 내용

(1) 실시 시기

이동 시기인 봄 및 가을

(2) 실시 장소

참가 지자체의 철새 중계지

(3) 실시 방법

ㄱ. 조사 주체

참가 지자체가 민간 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실시

ㄴ. 조사 방법 등

(조사 방법)

- 공동조사의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자재, 스케쥴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양자간 협의에 의해 표식조사 장소를 선정해, 청소년 참가에 의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보고서의 작성)

- 공통된 기록양식으로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

(4) 참가 지자체

러시아 연해주 지방

3 지난해 사업 결과

(1) 참가 지자체

러시아 연해주 지방

(2) 실시 결과

환동해 환경협력의 일환으로서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연해주 지방이 중심이 되어 조사한 담당자를 2004년 4월 21일 (수) 부터 29일 (목) 까지 7일간, 도야마현의「후추마치 조류 관측 스테이션」에 초대하여 조사대상 조류의 개체식별용 표식 (족쇄) 을 달아주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조사 방법을 연수하고 연해주 지방에서 조사한 내용· 조사 장소를 검토· 협의했다.

또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아동에코클럽을 수용해, (공익신탁

일본 경단련 자연보호기금) , 도야마현 주니어내츄럴리스트와의 의견 교환, 비오톱만들기 등을 통해, 양국의 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교류를 도모했다.

연해주 지방에서는 6,674마리 (나호토카스테이션 (노바리토프카)) 의 소조류에 표식조사 (헌팅) 를 실시할 수가 있었다. 포획 방조한 조류의 공통종류는 가시라타카(참새과), 촉새, 호오아카(참새과), 멧새, 시로하라(참새과), 호랑지빠귀, 되새 등 88종이었다.

후츄 조류 관측스테이션에서 실습하는 모습

새 둥지에 대한 강의